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생태관광

고 선 영*

The inscription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and Ecotourism in Jeju

Koh, Sun-Young*

요약 : 본 연구는 2007년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UNESCO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의 추진이 제주의 생태관광에 주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의 추진은 참여주체와 활용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활용한 제주 생태관광에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하였는데, 첫째 참여주체의 측면에서 소규모 자생단체 및 개별중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확대·발전하였다. 둘째 단순 자연경관중심 관광에서 지리관광이라는 테마관광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지역발전 에 대한 참여의지를 고양시켰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참여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 세계자연유산, 생태관광, 주민참여

Abstract :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meanings that the inscription of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onto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and the promotion of Geomunoreum International Trekking Fair has given to ecotourism in Jeju. The inscription of Jeju World Natural Heritage and its extension into Geomunoreum International Trekking Fair generated important meanings in Jeju ecotourism in terms of promotion subjects and direction of the natural heritage use. First, this research holds that the local government became a crucial role on ecotourism development, along with small-sized-voluntary group tourists. Second, the research reflects the change of Jeju ecotourism characteristics from simple landscape-oriented tourism to theme tourism such as Geo-tourism. Finally it was found out that community residents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regional engagement, while I suggest for some concrete ways to induce their participation for community-based development.

Key Words : 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 Geomunoreum International Trekking Fair, World Natural Heritage, ecotourism, residents’ participation

1. 연구목적

생태관광은 위락만이 아닌 책임있는 관광(responsible tourism)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관광객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성격의 다목적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제주관광의 최대 장점을 천연자연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도 생태관광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UNESCO로부터 2002년 12월 한라산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어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제주가 지니는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의 가치 증진과 함께 생태관광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

대되는 한편¹⁾, 생태관광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유산 가치 훼손 위험을 극복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8년 7, 8월 2달간 진행된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첫 활용사례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의 첫 시험대가 되었다.

본 연구는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제주 생태 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그 활용과정이 제주 생태관광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유산활용의 최초 사례인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를 중심으로 유산활용의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생태관광 계획과 관리의 맥락에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Beeton, 1998; Cater, 1994;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지리전공) 강사(Lecturer, Jeju National University)(suny@hanmail.net)

Brandon, 1993; Drake, 1991 등), 세계자연유산이 위치한 유산마을 지역주민들의 유산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형태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유산지구 생태관광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제주의 생태관광

생태관광은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에 따른 휴양 풍조의 한 맥락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이해된다. 따라서 자연을 단순 경험하는 기존 자연관광(nature tourism)과 달리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과 해설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자연중심 관광(오정준, 2003)이면서 자원중심형(resource-oriented) 관광으로 이해된다. 즉 생태관광은 비교적 훼손되거나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나 생태보호구역 등이 그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야생동물, 동굴, 화석지, 습지,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등의 자원이 대상이 된다(제주발전연구원, 2001). 이러한 의미에서 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제주도의 관광지는 수직·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 관광지가 해안 경승지나 한라산과 같이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정장소에 형성되었다면, 관광객의 기호가 다변화되고 일상생활과 관광간의 경계가 소멸되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활동과 관광활동이 중첩되면서 기존에 주목받지 못한 공간이 관광객의 기호, 흥미, 취향을 통해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 발

전하고 있으며(오정준, 2003) 이들은 대부분 생태, 문화, 체험, 녹색 등의 대안적 관광유형을 표방하면서 관광형태가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오름트레킹은 제주도의 대표적 생태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다. 제주도에는 크고 작은 368개²⁾의 오름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제주의 자연경관을 형성하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장소와 생태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오름이 생태관광자원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여러 전문서적과 대중매체를 통한 장소이미지 형성을 들 수 있다. 제주오름에 대한 전문서적인 ‘오름나그네(김중철, 1995)’와 ‘제주의 오름(제주도, 1997)’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영화(‘이재수의 난’, ‘연풍연가’ 등)의 촬영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름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증대되었는데, 그 결과 오름 동호회와 답사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오름을 통한 생태·환경학교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오정준, 2003).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확산속도가 급속화되고 있는데, 200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DAUM(www.daum.net)”의 카페검색창에서 ‘오름동호회’를 검색하여 얻은 1,495개 동호회 중 제주 오름과 관련된 동호회를 개설일별, 회원수별로 조사하였다. 1999년 6월에 제주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가 처음 개설된 이후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까지 총 245개가 개설되었다. 특히 2002년 이후에는 소규모 오름동호회 개설수가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그 가입회원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민들의 오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2008년 말 현재 동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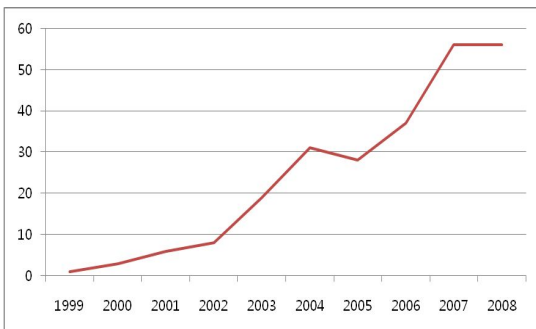


그림 1. 제주 오름동호회 개설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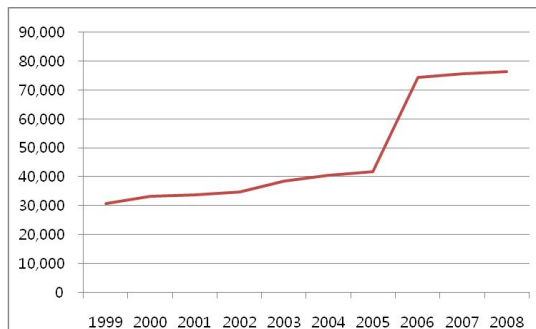


그림 2. 오름동호회 누적회원수

회 가입회원수는 76,000여명에 달한다³⁾(그림 1, 2).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내재된 참여개방성은 개인의 의도에 따라 중복가입이 가능한 특성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개인들의 흐름에 대한 관심증가를 의미있게 보여준다.

한편 규모별로는 대부분(190개, 77%)의 동호회가 50명 미만의 소규모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19개의 동호회는 10명 미만의 회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친분을 기반으로 한 소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생태관광은 자발적 소규모 집단 및 개인 관광객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의 특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생태관광의 발전 전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면서 그 특성이 강화·발전하고 있다. 그 대표적 계기가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지정과 이를 활용한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의 개최이다.

3.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과 생태관광

1) UNESCO 세계자연유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 UNESCO 세계유산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보존되어야 할 세계적인 주요 유산으로 인정하여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inscription)'한 유산을 의미하며, 이때 유산(Heritage)을 유네스코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Heritage is our legacy from the past, what we live with today, and what we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인규, 2008). 세계유산센터(World Heritage Center)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유산보호 운동의 취지로 조성, 1972년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호라는 분리된 운동을 통합하기 위해 세계 문화·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생물종다양성의 손실과 환경악화로부터 지역, 국가, 국제조직들로 하여금 인류 공동의 유산은 소재국에 관계없이 보존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유산센터가 국제기구로 구체화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이집트 아스완댐 건설 결정이었다. 아스완하이댐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보고인 Abu Simbel 사원이 위치한 계곡에 계획되었고 1959년 이집트와 수단정부의 요청으로, 유네스코가 국제구호 캠페인을 실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약 800만불의 비용이 들었는데 그 중 절반은 약 50개국의 기부로 이루어졌다. 이는 뛰어난 문화지역에 대한 국가들의 공유된 책임감과 유대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공은 다른 구호캠페인으로 확대되었고, 결국 유네스코는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지원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직을 준비할 수 있었다. 문화지역과 자연지역 보존을 통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1965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 세계최고 자연, 경관, 역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하면서 시작되었다. 1968년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이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목적들은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인간과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 제출되었다. 결국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협정(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 유네스코 일반회의에서 채택되었고 이 협정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연과 상호작용하는 방법과 양자 사이 균형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⁴⁾.

한편 세계유산의 등재신청은 협약에 가입한 각 당사국이 세계유산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회(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에게 문화유산을,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World Conservation Union)에게는 자연유산을 심사·평가하도록 위촉한다.

지금까지 세계유산은 1978년 처음으로 7개국 12개 유산지구(8개 문화지구와 4개 자연지구)를 지정한 이후, 2008년 8월 현재 전세계 145개국에 걸쳐 문화유산 679개, 자연유산 174개, 복합유산 25개로, 총 878개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표 1). 지역별로는 전체 유산의 50%가 유럽·북미지역에 집중

표 1. 지역별 세계유산의 분포⁶⁾

지역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total	%	해당국
아프리카	40	33	3	76	9	27
아랍국가	60	4	1	65	7	16
아시아·태평양	125	48	9	182*	21	27
유럽·북미	372	54	9	435*	50	49
라틴아메리카	82	35	3	120	14	25
total	679	174	25	878	100	145

자료: UNESCO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

되어 있으며 이들은 유럽지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문화유산에 집중되어 있다⁵⁾. 현재 한국은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인돌유적(2000)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2007년 국내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먼저 세계유산 후보를 선정하고 이를 잠정 목록으로 승인받은 후, 그 잠정 목록 중에서 신청가능하다. 한국은 현재 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삼년산성(1994), 공주무령왕릉(1994), 강진도요지(1994), 안동하회마을(1998), 월성양동마을(2002), 조선왕릉(2005)이, 자연유산으로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1994), 남해안일대공룡화석지(2002)가 승인되어, 6개의 문화유산과 2개의 자연유산을 잠정목록에 등재시키고 있다⁷⁾. 현재 남해안공룡화석지가 2008년 2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년 10월에 실사를 받아 2009년 7월 스페인에서 열리는 제33차 총회에서 등재여부가 결정되므로 국내 두번째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지역들은 10개의 선정기준⁸⁾ 중 적어도 1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기준 vii)과 viii)을 근거로 선정·등재되었다.

(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개요

제주도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응회구 등 3개 요소로 구성된 단일유산이며 그 공식명칭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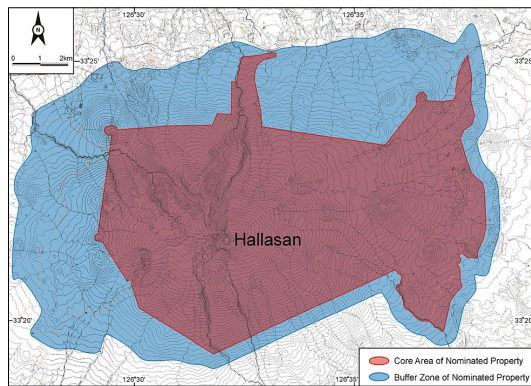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2006)

그림 3.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Island and Lava Tubes)’이다(그림 3).

제주도의 중심 봉우리인 한라산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화산체로서 전반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갖는 순상화산이다. 한라산 정상부는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매우 다른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라산 정상부가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용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백록담 분화구의 서쪽 절반은 점성이 높은 조면암으로 이루어져 돔형상을 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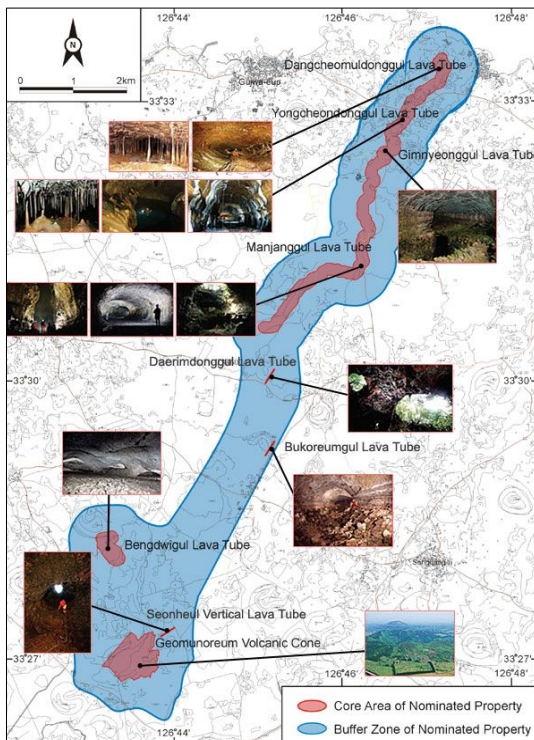
그림 4.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고 있는 반면, 동쪽 절반은 점성이 낮은 조면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지형이 완만한 편이다(제주특별자치도, 2008). 한라산은 천연보호구역을 중심으로 1966년에 천연기념물(제182호) 및 1970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2002년에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에는 UNESCO 세계자연유산(핵심지역 90.931km², 완충지역 73.474km²)으로 등재되어 세계적으로 학술적·자원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Geomunoreum Lava Tube System)는 해발 454m의 작은 화산인 거문오름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출된 다량의 현무암질 용암류(lava flow)가 지표를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약 13km 떨어진 해안까지 흘러가는 동안 형성된 일련의 용암동굴들의 무리를 말하며, 형성시기는 약 30만년 전에서 10만년전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유산면적 22.367km²(핵심지역 3.303km², 완충지역 19.064km²)에 이르는 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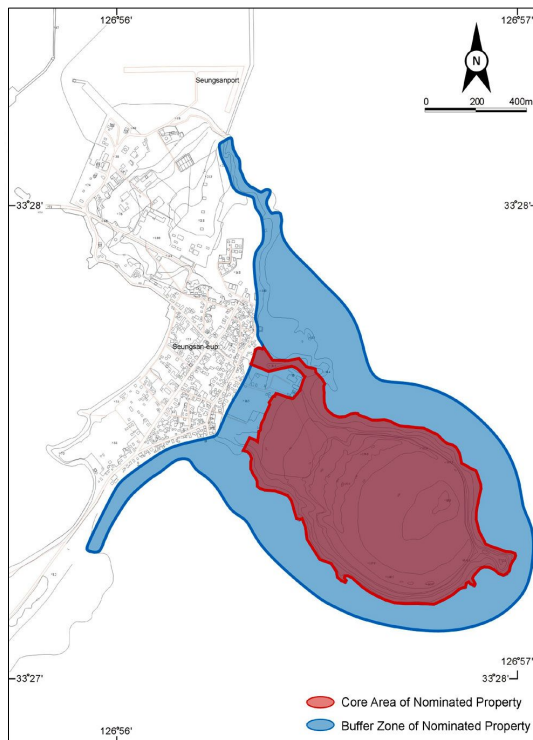
홀 1리·2리·구좌읍 김녕리·월정리·행원리·덕천리에 걸쳐 분포하며(제주특별자치도, 2008), 거문오름·벵뒤굴·만장굴·김녕굴·용천굴·당치물동굴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동굴로 구성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나머지 두 구성요소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이 용이한 화산의 모습들은 전 지구적 화산활동을 이해하는데 특징적이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시해 주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거문오름용암동굴에 포함된 용천굴과 당치물동굴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되어 일반인에게 미개방된 상태이고 그 경관적 가치가 훌륭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구(Seongsan Ilchulbong Tuff Cone)는 약 5천년 전 얇은 수심의 해저에서 수성 화산분출에 의해 형성된 전형적인 응회구이다(그림 6). 유산면적 1.688km²(핵심지역 0.518km², 완충지역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2006)

그림 5.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2006)

그림 6. 성산일출봉 응회구

1.17km³)에 이르고, 높이 182m로 제주도의 동쪽 해안에 거대한 고성처럼 자리잡고 있는 이 응회구는 사발모양의 분화구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절벽을 따라 다양한 내부구조를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서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측면이 모두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가파른 해식애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침식의 결과, 성산일출봉은 분화구의 내부 지층부터 표면의 지층까지 화산체의 완벽한 단면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특징이 일출봉의 과거 화산활동은 물론 전세계 수성화산의 분출과 퇴적 과정 해석에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제주특별자치도, 2008)에서 지형학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즉 화산체로서 원형 그대로 보존된 형태보다 해식에 의해 단면이 드러남으로 인해 그 지층구조를 그대로 확인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형의 교육적 가치를 더욱 크게 인정받았다.

(3)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가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의 가치는 선정기준에 준한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서 확인가능하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10개 선정기준 중 기준(vii)과 기준(viii)을 충족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에서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뛰어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⁹⁾

기준(vii) :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계로 평가되고 있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전례가 없는 뛰어난 시각적 충격을 주고 있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형형색색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들이 동굴의 천장과 바닥에 발달하거나 검은 동굴벽을 부분적으로 장식하고 있어 비길데 없는 유일한 장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바다에 솟아있으며 요새와 같은 성산일출봉은 극적이고 뛰어난 경관을 보여준다. 또한 한라산은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 기암괴석과 주상절리가 발달한 절벽, 호수로 되어 있는 분화구를 갖고 있으며, 높이 솟아있는 한라산 정상 등은 경관적, 심미적 매력을

더해주고 있다.

기준(viii) : 제주도는 움직이지 않는 대륙지각판의 열점 위에 발달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몇 개 안되는 커다란 순상화산 중의 하나로서 특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용암동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굴들은 모두 잘 보호되고 있다. 또한 일부 용암동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중유석을 비롯한 다양하고 수많은 탄산염 이차 동굴생성물들로 장식되어 있어 장관을 이룬다. 화산의 구조와 퇴적학적 특징들이 잘 노출되어 있는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써치형 화산분출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선정기준에 준한 가치는 이의 사후 활용과 관련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즉 기준(vii)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미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제주 자연환경의 뛰어난 지형경관적 가치와 더불어 세계자연유산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보존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미공개 동굴을 포함하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는 시각적 충격과 훼손이 용이한 구조물들로 인해 엄격한 보존원칙에 입각한 활용방안이 요구된다.

한편 기준(viii)은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형·지질학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관광 수요자들에게 해당 자원의 지형학적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관광수요 변화양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최근 관광의 성격이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습과 참여의 기쁨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선영, 2006). 관광을 통해 '인간의 지적, 심리적' 계발 기회로 삼고 환경생태적·문화적 지식 획득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다.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지형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생태관광 과정에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제주 생태관광의 질적 변화라는 측면에서 단순 경관중심의 제주관광을 지리관광(Geo-tour)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주의 경

관자원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지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가치를 확인시켜주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전문 해설사를 활용하고 있다. 전문적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받은 유산 해설사가 동행하면서 상호교류적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된 최초의 자연유산 생태관광 사례가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이다.

4.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 추진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행정구역상 제주시 조천읍과 구좌읍에 걸쳐 분포하며, 해당 유산의 기원을 제공하는 거문오름과, 거문오름 분출로 인해 생성된 5개의 용암동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북북동 방향으로 흐르면서 뽕뒀굴, 만장굴, 김녕굴, 용천굴, 당처물동굴을 형성시켰다는 것이 지금까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형성기원에 대한 정설이며, 유산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핵심지구가 각 용암동굴로부터 50m, 완충지구가 각 핵심지구로부터 약 500m 지역까지 지정되어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이 이미 관광지로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음에 비해,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미개방 동굴을 포함하고 있고 학술적, 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유산활용 및 보존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첫 활용사례인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의 추진은 지역주민, 제주도민, 관광객에게 고무적인 이벤트가 되었으며, 향후 제주 자연유산활용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시범사례가 되었다.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는 2008년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진행되어, 두달간 17,150명이 방문하였다. 트레킹 대회는 거문오름 일대 10.5km를 탐방하는 트레킹 상품으로서 화산분출로 생성된 거문오름의 독특한 지형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테마상품으로 만들어졌다(중앙일보, 2008). 트레킹 코스(그림 7)는 A코스와 B코스로 구분되며, A코스는 거문오름을 중심으로, B코스는 거문오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일보(2008)

그림 7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대회 코스

에서 분출된 용암의 흐름을 따라 지상을 트레킹하도록 구성되었다. A코스는 거문오름의 정상과 분화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총 길이 5,559m이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시 정각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해설사들의 유산 해설이 제공되었다. B코스는 분출된 용암흐름을 상상하며 트레킹하는 코스로서 총길이 4,940m이며, 자연유산 해설은 동반되지 않으나, 한라산등산학교¹⁰⁾ 동문회가 안전 및 코스 안내를 담당하였다.

A코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유산 해설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OUV가 vii) 자연미와 심미적 중요성, viii) 지구역사의 주요 단계를 표출하는 지형학적 중요성임을 고려하여, 경관 관람을 통해 충족될 수 있는 기준 vii)과는 별도로, 기준 viii)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형학적 형성과정 및 그 의미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한 자연유산 해설사 양성교육을 제주참여환경연대¹¹⁾에서 담당하였으며,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거쳐 총 16명의 해설사를 배출하였다. 특히 이중 6명은 거문오름 소재지인 제주시 조천읍 선홍 2리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지형학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지역에 특화된 역사, 생활문화에 대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

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유산활용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마을 자산의 세계자연유산 지정에 자부심이 고양되고 이를 활용하고 보존하는데 구체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 트레킹 대회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호응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 지역주민 6명에 국한되었던 해설사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향후 해설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는 제주 생태관광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적극적 참여를 보여준 실례가 되고 있다. 이미 제주의 생태자원을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적극적 노력을 경주하였고 등재 이후에는 이를 생태관광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현재 UNESCO 지오파크(Geopark)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소규모 및 개별 관광객 위주의 생태관광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는 중심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2월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 홍보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각종 자문 및 정책제안 등을 담당하는 세계유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회와 자문역할을 담당할 자문위원, 실무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학술연구분과, 보존관리분과, 마케팅전략분과, 교육지원분과, 지역협력분과를 두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표 2.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추진위원회 구성과 역할

참여기관	주요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총괄 관리
지역언론사(한라일보사)	기획, 마케팅
제주환경참여연대	자연유산 해설 자연유산 해설 양성 교육
한라산등산학교	트레킹 참가자 안전 요원 트레킹 코스 모니터링
지역주민(선홍2리)	자연유산 해설 유산지구 관리

한편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추진업무를 담당할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전문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었고(표 2) 다양한 관계자의 참여·협조를 통해 전문성과 추진력이 뒷받침되었다.

거문오름국제트레킹대회추진위원회 구성은 관, 민간, NGO, 지역사회가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생태관광의 환경·문화·경제적 발전방안 제시, 생태관광과 관련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보급, 적절한 생태관광개발의 기준과 감시시스템 개발과 실행 등 생태관광개발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 수행, NGO 단체는 생태관광개발 결정시 자문단체의 일부로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적절한 개발로의 진행을 유도하고 비판 및 감시 기능과 더불어 효과적인 생태관광개발을 위한 지역의 협력자를 탐색하고 생태관광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지역주민은 가장 밀접하게 해당 지역과 연관되어 있는 역할자로서 생태관광의 실행·관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국제 트레킹대회는 최초의 유산지구 활용 사례로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은 거기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으로써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력있는 지역만들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대회의 추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내 최초 세계자연유산인 제주 세계자연유산 활용에 있어서 참여주체와 역할, 활용방향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 둘째 제주도 생태관광의 발전방향이 소규모 자생단체 및 개별중심 생태관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발전했다는 것, 셋째 단순한 경관중심 관광에서 지리관광이라는 테마관광으로 심화·발전하

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지역발전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트레킹대회를 기반으로 유산지구 내에서 지역사회 참여를 제고한 지역사회 기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산의 철저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들에 대한 권한강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은 인류공영의 자산으로서 철저한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유산지역 식생에 대한 불법 도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권한이 주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생태관광이 갖는 환경보존, 환경교육적 기능이 아직 정착하지 못한 관광환경하에서 보존의식 형성과 생태자원 보존을 위해 이를 제재할 권한과 강제성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해당 유산지구 관리자들에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문오름과 같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유산지구나 생태관광지의 경우, 향후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관리자들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부여가 요구된다.

두 번째는 유산지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파트너십에 기반한 조직체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체적 맥락에서의 총괄관리조직과 함께, 지역특성 혹은 유산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구별 관리조직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특히 이는 관보다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독립적인 법인체 혹은 독립구성체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구수용과 자원관리·보존의 측면에서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법인체 내지는 독립구성체를 통해 그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특수성도 유지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는 유산해설사 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자연유산 해설사를 포함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특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 생태관광은 민감한 생태자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관광객에 대한 관리 역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다양

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확보는 성공적인 생태관광관리를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국립산림과학원, 2007).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은 일반적인 해설사들이 갖추지 못하는 유산관련 생활 문화 및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서 차별화된다. 해설사의 역할은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 경관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유산의 질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주민은 객관화된 설명을 넘어, 유산지역의 생활문화·역사와 관련된 생생하고 차별화된 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지형, 식생 등에 대한 제한된 전문적 정보 습득을 위해 이들의 해설사양성교육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

- 1)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방문한 관광객은 2007년 1월~8월 160만 3천 26명에서 2008년 같은 기간 189만 9천 679명으로 18.5%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는 14만 3천 524명에서 19만 1천 958명으로 33.7%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08.9.15일자)
- 2) 제주의 오름이 과연 몇 개나 분포하는가에 관한 많은 이견이 존재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오름(1997)에서 오름을 분화구를 갖고 있고, 내용물이 화산쇄설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산구(火山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라고 정의(제주도, 1997), 크고 작은 제주의 오름을 368개로 공식집계하고 있다. 여기에서한라산 정상에서 볼 때 표고의 연속과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 용암류의 끝부분으로 인식되는 봉우리들은 오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김승태·한승호, 2008). 오름 지역별로 제주시에 210개, 서귀포시에 158개가 분포하고 있으며 오름 형태에 따라 말굽형(174개, 47.3%), 원추형(102개, 27.7%), 원형(53개, 14.4%), 복합형(39개, 10.6%)으로 구분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07).
- 3) 인터넷 사용 인구가 20~30대의 젊은 층이 주를 이루고 있고 최근 중년층을 중심으로 등반붐이 일고 있으며 동호회 미가입 개별 등반객 및 도외 관광객들을 고려할 때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4) 유네스코 홈페이지(<http://whc.unesco.org>)
- 5) 세계유산의 지역적, 국가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02년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 해에 신청하는 유산의 수를 1개국 1건으로 한정시켜 총 30건으로 제한하자는 규정안을 채택하였다. 이 제한은 2003년에 다소 완화되어 연간 40건으로 수정되면서 한 나라가 2개의 유산을 신청할 경우 자연유산과 복합유산 중 한가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첨부되었다
- 6) 이 지역에 분포하는 유산 중Uvs Nuur Basi 유산은

- 그 위치가 두 국가와 대륙에 걸쳐 분포하는 대표적 월경유산(trans-regional property)임. 몽골(아시아)과 러시아(유럽)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유산에도 포함되면서 유럽지역에도 포함되고 있음.
- 7)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8) 세계유산의 구체적인 선정기준(World Heritage Center 200, 79-95)은 다음과 같다. i. 인간의 창조적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것. ii. 세계 문화지역 내, 혹은 시대에 걸쳐 건축이나 기술발전, 기념물, 도시 계획 또는 경관 디자인과 같은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는 것. iii. 현재 존재하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문명 또는 문화적 전통에 대한 비범하거나 독특한 증거를 내포하는 것. iv. 건축유형, 고고학적 혹은 기술적 복합물 또는 인간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는 경관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 v. 전통적 인간거주지, 토지이용 혹은 해양이용의 뛰어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문화를 대표하거나 특히 회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손상되기 쉬운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것. vi. 훌륭하고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나 생활전통, 사고(ideas), 신, 예술작품 혹은 문학작품과 직접적으로, 명백히 관련된 것. vii. 최고의 자연현상이나 독특한 자연미, 심미적 중요성을 포함한 곳. viii. 지구 역사의 주요 단계를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으로서, 지형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또는 중요한 지형적, 자연지리적 특성을 포함한다. ix. 육상, 담수(fresh water), 해안,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생태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대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되는 것. x.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연서식지로서 과학적 또는 보존적 관점에서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곳
- 9) <http://whc.unesco.org/en/list/1264>
- 10) 한라산등산학교는 제주산악연맹 산하기관으로서, 산악등반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기관이다. 한라산의 자연일반과 문화, 식물, 신화와 전설, 목장사와 같은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도의 생태 문화교육과 일반등산이론과 실기, 기초암벽등반이론과 실기, 독도법, 응급처치 및 조난대책 등의 일반등산교육을 실시한다.
- 11)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반대하면서 제주도의 많은 단체가 모여 결성한 '제주도개발특별법반대범국민회'가 그 모태이며 '참여차질', '환경보전',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한 자발적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제주의 대표적 시민단체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2007, 제주시험림의 생태관광계획 수립.
- 김종철, 1995, *오름나그네*, 도서출판 높은오름.
-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610-629.
- 이인규, 2008, 세계자연유산의 등재와 보존·활용방안, 2008 자연유산 보존 세미나 및 담당자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
- 김승태·한승호, 2008, *제주의 오름* 368, 대동출판사.
- 제주발전연구원, 2001, *제주형 생태관광개발의 방향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2007, *오름관리기본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2008, *제주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발전연구원, 2008, *제주관광 고비용·불친절 해소추진 상반기 추진성과 조사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청, 2006, *세계자연유산 등재신청서(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Candidate for World Heritage Inscription)*.
- 제주특별자치도·한라일보, 2008, *거문오름*.
- 한국지질연구원·제주발전연구원, 2006, *제주도 지질여행 증보판*.
- Beeton, S., 1998, *Ecotourism: A Practical Guide for Rural Communities*, Gollingwood: Landlink.
- Brandon, K., 1993, Basic steps toward encouraging local participation in nature tourism projects. In K. Lindberg and D.E. Hawkins (eds.), *Ecotourism: A Guide for Local Planners*, 134-151, North Bennington, VT: The Ecotourism Society.
- Cater, E., 1994, Ecotourism in the third world: Problems and prospects for sustainability, In E. Cater and G. Lowman(eds.), *Ecotourism : A Sustainable Option?*, 69-86,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Drake, S.P., 1991, Local participation in ecotourism projects, In T. Whelan (ed.), *Nature Tourism: Managing for the Environment*, 132-163, Washington DC: Island Press.

문헌

고선영, 2006, *장소자산에 기반한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World Heritage Center, 2008, *Operational Guid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UNESCO 세계자연유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

포털사이트 DAUM(www.daum.net)

문화재청홈페이지(www.cha.go.kr)

연합뉴스, 2008. 9. 15. “제주 유네스코 등록후 관광객 급증”.

중앙일보, 2008. 6. 17. “세계유산 제주 거문오름 생태관광 새 명소로 뜬다”.

(접수: 2009.2.4, 수정: 2009.3.31, 채택: 2009.4.13)

K C I